

전남도, 농수산식품 674만달러 수출 계약

美·日 등 5개국 바이어 초청 상담회 … 도내 55개 기업 홍보 효과

지난해 농·수산식품으로만 수출 3억 달러를 달성한 전남도가 올 들어 첫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674만 달러 어치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3일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5개국 10명의 농·수산식품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지난 27~28일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도내 55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추진했으며, 1대1 맞춤형 수출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출 상담 결과 일본의 H&F 인터네셔널사가 화원 협력업체 가공공장과 80만 달러를 비롯해 성진 영농조합(70만 달러), 곡성멜론(70만 달러), (주)인조이네추럴(50만 달러), 안복자 한과(5만 달러) 등

담양 유기농샵(50만 달러), (주)자연과 미래(20만 달러), 여수새고마(20만 달러) 등 모두 36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국의 위해구일무역은 가보팜스와 꿀유자차·배음료 200만 달러 상당을 계약할 예정이고, 베트남의 돌베트남(Dole Vietnam)은 성진 영농조합(100만 달러), 백양 영농조합(7만 달러), (주)인조이네추럴(50만 달러), 안복자 한과(5만 달러) 등

과 미국의 배트로(BATRO)사는 안복자한과(2만 달러)와 각각 수출상담을 가졌다.

이번 수출 상담회장에서 현장 수출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바이어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현지 공장을 통한 추가 상담, 가격 협상 등을 거쳐 정식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수출기업에 적합한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바이어의 수출기업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수출·입자 간에 상호 신뢰성을 확보하

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정순주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 10명의 바이어와 도내 55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맞춤형 수출 상담을 통해 실속이 있었다”며 “앞으로

도 수출상담 계약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번 수출상담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파릇파릇한 보리밭 봄내음 물씬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3일 강진군 작천면 파릇파릇한 보리밭 이랑 사이를 걷는 아가씨들의 모습에서 봄내음이 물씬 풍겨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 방문객에 지역 역사 재미있게 들려준다

市, 11월까지 ‘이야기꾼 양성’ 나서

향교·읍성 등지서 24회 현장 실습

나주시가 탐방객들에게 지역역사를 재미있게 들려줄 ‘나주 이야기꾼’을 양성한다.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6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스토리텔러’ 양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주 이야기꾼 양성’은 나주시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

는 2014 나주향교 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6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교육은 나주의 역사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나주향교 충효관과 나주읍성 일원 등지에서 오는 11월까지 총 24회의 강좌와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

고려~조선시대 1000여년에 걸



쳐 조성된 나주읍성관(사적 제387호)은 4대 성문과 관아와 향교 등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시는 이러한 유·무형의 문화유

산을 주민들이 직접 ‘스토리텔러’가 돼 생생하게 들려주는 ‘이야기꾼’을 양성해 스토리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양성과정을 거쳐서 오는 11월중에 최종 심사를 통해 나주 이야기꾼 인력을 확정하게 된다.

나주시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나주 이야기꾼은 나주의 유서 깊은 역사문화를 친근하고 생생하게 술술 풀어줄 것”이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의 삶이 공존하고 있는 나주읍성관과 나주시가 주진 중인 5대 명품길의 훌륭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보성군 장학재단 인재 육성기금 100억 돌파

설립 5년7개월 만에

부한 익명의 독지가와 2013년 1억원을 기부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건강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각 1000만 원을 기부한 임기승(별교읍) 할아버지와 유삼순(별교읍) 할머니의 사업은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보성군 장학재단은 5년 동안 249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2억 5800만 원을 전달하고, 명문고 2개교를 선정해 8억 96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종해 군수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총 12억 2400만 원을 관내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장학금 1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더 많은 군민이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여수상의·산단, 수산물 판매부진 어민돕기

2억 3000만원 어치

굴·새조개 등 구입

특히 일부 회원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수지역 수산물을 사도록 권유하고 있어 전체 구매 금액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GS칼텍스는 지난 25일 7억원의 수산물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단위 학회·단체 등 1500여곳에 공문을 발송하고 여행 전문 월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여수상의 강영식 사무국장은 “우리산호 출렁 사고와 여파로 짚체에 빠진 지역 수산업과 음식·숙박·관광업 등을 살리는데 작은 불씨를 지피기 위해 수산물 구매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남도 관광시설 확충 70억 지원

금리 1%대 융자

희망업체는 각 시·군 관광부서에 접수해야 하며, 대상자는 오는 4월 15일 결정된다.

올해부터 30살 미만의 소형 호텔업, 20실 이상의 의료관광 호텔업 등이 융자 대상에 추가되고, 신축의 경우 균등상환 기간이 2년 늘어나는 등 대출조건도 완화됐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51억원, 올해 26억원 등 모두 77억원이 조성돼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CJ 헬로비전

완전할인 요금제 출시 기념!

가입 축하 이벤트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기본요금 완전 무료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11,000원 (데이터 요금 별도)
150분 이상 통화 시 기본료 비교
100% 절감

11,000원 (데이터 요금 별도)
150분 미만 통화 시 기본료 비교
55% 절감

0원 (데이터 10M 무료)
헬로 모바일

5,000원 (데이터 10M 무료)
헬로 모바일

다양한 최신 피처폰 단말기로 더욱 저렴하게!

큰 LCD화면에 7가지 컬러의 LED가 반짝이는 슬림디자인

기본기에 충실했던 편의 기능들과 시원한 대화면

넓은 키판드, 쉽고 명쾌한 실용적인 UI

Samsung Anycall 노리2
LG 와인샤베트
Samsung Anycall 미니멀풀러

60만 고객의 선택!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

www.cjhello.com